

## 향후 한글 폰트( FONT )의 발전 방향

김 진평 ( 서울여대 )

올해는 한글이 반포된지 546년을 맞는 해이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전통 주조활자 방법에서 근대식 새활자 주조법으로 처음 한글 활자가 만들어진지 112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며, 원도에 의한 기계조각 활자법이 처음 도입된지 38년, 한글 사진식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보급된지 대략 20여년, 그리고 한글 전산 활자체가 개발되기 시작한지 대략 15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햇수계산에는 활자산업의 발달 과정과 그 속도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며, 더 나아가서는 활자산업에서 우리의 기술역량 문제의 제기까지도 함축되어 있는 햇수계산이기도 하다. 향후 한글 폰트( FONT )의 발전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과정을 되새겨 봄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한다.

### 활자산업의 발달 과정

한글이 만들어져 반포될 때에 조선에는 목판인쇄나 나무활자 인쇄만이 아닌, 고려시대 이래로 발전시켜온 전통 주조활자에 의한 인쇄술이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 만들어진 글자를 곧 활자화하고 대량으로 인쇄할 수가 있었다. 이는 세계문화사상 매우 획기적인 사례이다. 전통 주조법에 의한 무쇠 혹은 놋쇠활자는 해감을 채운 거꾸집으로 주조되어 크기가 고르지 않고 가장 작은 한글활자의 크기라 해도 민기등기준으로 5 - 6mm 정도나 되었다. 그것도 1800년대 활자중 작은 자가 그렇고 보통 책의 본문활자 크기는 민기등 1cm정도이어서 당시 책의 판형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880년 최지혁의 글자본으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최초로 주조된 근대식 새활자는 활자크기에서 이미 오늘날과 같은 포인트제나 호수( 號數 )제가 적용되어 책의 판형은 오늘날과 유사한 크기로 작아지게 되었다. 이 새활자는 글자본을 활자크기대로 나무나 금속에 뒤집어 새긴 종자( 種字 )를 구리로 전기도금하여 어미자를 만들었던 전태활자( 電胎活字 )였다. 때문에 활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새긴 사람의 조각기술에 따라 활자체의 모양이 읽기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았다. 이렇듯 읽기 불편했던 본문 활자체를 한꺼번에 미려

하게 바꾸어 놓은 것이 원도에 의한 기계조각 활자였다. 1954년 국정교과서에 최초로 벤튼 활자조각기( Benton Matrix Cutting Machie )가 도입되고 이어 1956년 이후 부터는 동아출판사, 평화당 인쇄, 삼화인쇄 등 국내 인쇄소들에도 이 활자조각기가 도입되는 한편 여기에 필요한 활자 원도의 설계가 최정호, 최정순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기계조각 활자법의 시작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로부터 활자 원도가 전문적으로 설계되기 시작한 것이며 또한 한 원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크기를 다르게 해서 활자를 조각할 수있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개선이 되었다 해도 이러한 주조 활자에 의한 활판인쇄는 주조, 문선, 조판, 지형, 복판, 정판, 인쇄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며 이에 따른 많은 설비, 넓은 장소,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같은 활자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사진식자였다. 1954년 국정교과서에 활자조각기가 일본으로부터 도입될 때 사진식자기도 함께 들어왔었다. 그러나 일제 사진식자기가 국내에 보급되고 사진식자의 원도가 개발되어 다양한 사진식자체가 소개되었을 때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이르러서 였다. 금속을 녹여서 만든 주조활자의 방법을 보통 핫타입( hot-type )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콜드타입( cold-type )이라고 하는 사진식자는 네거티브 필름상태의 활자를 빛을 투과해서 인화지 위에 한 자 한 자 촬영해서 현상, 인화하는 방법이었다. 사진식자기라는 것은 마치 타자기와 사진기를 합친 원리의 기계였으며 따라서 주조활자와 같은 많은 설비와 넓은 장소, 많은 인력이 필요없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하나의 식자체를 가지고도 넓히거나 좁히도록 변형시킬 수있고 식자사이의 공간을 자유로 좁혀서 심지어 겹쳐 찢 수도 있도록 타이포그래피적 표현의 영역이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잇점으로 인하여 70년대와 80년대 우리의 출판, 인쇄계는 사진식자 방법이 석권하였다. 그러나 사진식자 조판방법은 오래 숙련된 오퍼레이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만큼 매우 까다롭다. 뒤집어 배열된 네거티브 필름상의 사진식자반들 속의 수많은 글자들 속에서 원하는 글자들을 한 자 한 자 골라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조판 상의 공간 배열을 손으로 조정해 나가야 하므로 많은 경험에 의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오퍼레이터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1970년대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컴퓨터에 의해 해결되어가고 있다. 단순한 한글 컴퓨터 키보드에 의해 입력된 원고는 원하는 전산 활자체( 폰트 )로 선택되어 원하는 상태로 출력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문제는 숙련된 기술의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도 쉽게 전문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훌륭한 한글폰트와 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활자산업 발달과정의 변천속도를 보면, 앞서 언급한 대로 한글 전통 주조활자법은 새활자 주조법이 도입되기까지 약 430여년간을 지속하였다. 새활자 주조법은 기계조각 활자법이 도입되기까지 약 70여년간 지속하였으며 기계조각 활자법은 사진식자법이 도입, 보급되기까지 대략 20여년간 지속하였다. 사진식자법은 전산식자법의 개발, 보급까지 대략 10여년간 지속되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이 도입, 보급되었다고 해서 그전 기술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활용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상의 계산에 큰 오차는 없으리라고 본다. 이처럼 활자산업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제 전산화된 활자산업 기술은 가일층 그 변화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중이다.

## 활자산업 기술의 역량

우리의 활자산업 기술의 자체역량은 어떠했었나? 잘 아는 바대로 조선의 전통 주조활자 기술은 고려시대 이래로 순수 우리나라 자체기술 역량의 산물이었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의 자존심은 그러나 근대식 새활자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할 때부터 손상되기 시작했다. 서구의 근대식 활자 및 인쇄기술은 1455년경 독일의 구텐베르그에 의해 발명되었는데 이 시점은 고려의 금속활자가 발명된지 대략 200년 뒤라고 한다. 이렇게 뒤늦게 발명된 서구의 인쇄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 발달된 기술이 일본을 거쳐 도입되어 담보상태의 전통 주조활자 기술을 밀어낸 것이다. 이 때의 새활자 기술은 서구로 부터 직접 도입한 것이 아니고 서구기술을 일본화 시킨 기술을 일본 한자활자 및 일본인 기술자와 함께 도입한 것이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의 활자기술과 시설 및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약탈해 갔었고 일본의 전통 금속활자 기술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300년 뒤의 일본은 서구기술을 일본화 시켜 이를 다시 조선에 수출하였던 것이다. 기술적으로 먼저 앞섰던 조선이 이토록 기술후진국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서구와 일본 및 조선을 비교할 때 그것은 명확히 드러난다. 조선의 활자 및 인쇄기술은 주로 나라에서 소유하여 활용하였던 관주도형이었던데에 비해 서구는 처음부터가 민간산업으로 시작되었고 시장경제의 자유경쟁하에서 급속히 발전되었다. 일본도 명치유신 이후부터는 민간인 본목창조(本木昌造)에 의해 민간산업으로 주도되어 발전하였다.

해방이후 민간 편집, 인쇄 산업에서의 기계조각 활자법과 사진식자법 기술도입 역시 일본으로 부터 이루어져 왔다. 뜻있는 기업들에 의해서 인쇄산업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통해 자체기술 개발 역량이 늘어가고 있다. 이제 전산화된 활자산업에서도 이같은 노력이 더욱 절실해 가고 있다.

## 한글폰트의 환경

폰트( font )라는 용어는 본래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 ) 용어이다. 그 뜻은 특정 활자체( typeface )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 각종 기호와 부호 등을 모두 갖춘 한 벌을 뜻한다. 이 용어가 컴퓨터분야에서는 컴퓨터 활자체를 뜻하는 용어로 컴퓨터 폰트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폰트라고만 하여도 컴퓨터 활자체의 뜻으로 약속되고 있는 것 같다. 한글폰트의 환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지극히 혼돈된 상태이나 가까운 장래에 보다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글폰트의 혼돈된 환경을 조목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전산인들의 한글폰트에 대한 전문적 인식의 결여이다. 한글폰트의 문제는 글자 비슷하게 보이도록 대충 만들면 끝날 문제가 아니며, 이른바 명조와 고딕이라는 가장 많이 쓰이는 활자체를 컴퓨터 폰트로 만들고 나면 끝날 문제도 아니다. 컴퓨터 도입초기에 이같은 전문적 인식 결여로 인해 한글폰트를 전산인들 스스로 설계하여 얼마나 좋지 않은 한글폰트가 나돌게 되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추한 한글폰트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한글폰트 자체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가령 이른바 한글의 조합형 폰트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완성형 폰트와는 비교될 수 없이 모양이 좋지 않은 것으로 모두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합형 폰트 초기에 전산인들이 비전문적으로 조악한 폰트를 만들어 낸 데서 생겨난 일반인들의 선입견인 것이다. 한글폰트는 우리의 글자문화를 이루어 낼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극도의 균형과 조화와 통일감이 주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고도의 창의성에 의해 보다 새롭고 쓰임새있는 폰트들이 속속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활자체는 마치 옷과 같이 여러 쓰임새에 맞는 다양한 성격이 요구되며 또한 쓰는 사람과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한글폰트 개발에는 폰트전문가와 협력하든지 아니면 폰트전문가에 의해 잘 개발된 폰트를 구입하여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글폰트 원도의 저작권 문제이다. 여기서 폰트 원도라 하면, 종이위의 설계나 화면상의 설계 등이 모두 해당된다. 한글폰트 초기에는 너나 할 것없이 모두 저작권이 일본과 설계자에 있는 사진식자를 불법으로( 아직 활자체의 저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있지 않지만 )복제하였다. 앞서 언급한 전산인들의 인식결여와 함께 사진식자체의 복제행위가 결합해서 한글폰트는 거저 얻을 수있는 값싼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한글폰트의 창작과 그 건전한 유통질서에서의 기대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한글폰트의 유통구조는 현재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전산기술은 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전산기기도 날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심겨질 보다 훌륭한 한글폰트를 구하기가 힘든 것이다. 폰트의 유통가격이 매우 불안정하고 한글폰트 자체의 품질도 신뢰할 수없기 때문에 결국 웬만한 기업에서는 인력을 뽑아 자체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한글폰트 정보에 대해 서로 기술장벽을 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결국 엄청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환경인가?

## 향후 한글폰트의 발전방향

현재의 어려운 한글폰트 환경을 개선하는 길은 먼저 한글폰트의 개발자와 사용자를 올바르게 연결시켜주는 창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많은 시행착오끝에 전산인들도 한글폰트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문적 개발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자도 사용자도 서로의 확실한 정보조차 열려져 있지 못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원활한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따라서 한글폰트의 개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과학기술원 부설 시스템공학 연구소내에 고품위 폰트 개발과 건전한 유통보급을 통해 국내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폰트개발보급센터가 설립된다고 한다. 그 주요업무는 폰트개발 사업과 유통보급 사업 그리고 폰트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이라고 한다. 개발자는 회원에 가입하여 개발한 폰트를 등록하기도 하고 개발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개발하는 한편, 사용자는 회원에 가입하여 등록된 폰트를 직접 구입하거나 혹은 원하는 폰트개발에 개발분담금을 부담하는 개발회원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하여 개발자와 사용자가 서로 유익한 통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위

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 한글폰트의 환경이 지극히 혼돈된 상태에 있지만 새로이 설립되는 폰트개발보급센터가 앞으로 그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보다 정돈될 수있다고 믿는다.

향후 한글폰트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먼저는 한글폰트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이다. 한글폰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팔리고 장사가 되어야 그로 인해 계속 재투자될 것이 아닌가? 이제 세워지는 폰트개발보급센터는 그자체로서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가입할 전산인들과 폰트전문가들 및 기업인들 스스로가 협동하고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즉 훌륭한 한글폰트를 만들기 위한 전문인들의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세번재로는 당연히 한글폰트의 저작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최후의 제재조치이다. 만약 위의 두가지가 잘 확립된다면 최후의 제재조치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연코자 하는 것은 되도록 관에 의존하여 만성적 관주도형의 사업을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성장해 갈것과 관의 해당부서는 가시적이고 실적위주의 효과가 아닌 보다 우회적으로 민간주도의 사업이 될 수있도록 지원해줄 것이 요망된다. ( 끝 )